

제 목	국 문	개원전문의의 보유병상 변동추이에 관한 연구		
	영 문	The Trends of Own Beds by Practicing Medical Specialists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최병순, 한동운,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Byung Soon Choi, Dong Woon Han, Ok Ryun Moon Depar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Public Health, SNU		
분 야	의료제공자 행태 및 병원관리	발 표 자	한 동 운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3 년 11 월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는 미국제도와 유사하여 전문의들의 근무 장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의원이고, 전문의가 이를 직접 경영하면서 또한 의원의 상당수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유효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수진율이 크게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병상의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7차 5개년 계획중에도 정책금융지원을 통하여 3만 병상을 증설할 계획에 있고, 각종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병상수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병상증가 시책이 타당성을 지닐려면, 병상부족 현상이 현저하고, 그 동안 증설된 병상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1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병상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상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지원책을 모색하기 이전에 기존 의원들의 실상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하겠다.

2. 연구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개원중인 의사의 면허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인 개원의 중 전문의의 자격을 보유한 2,116명에 대해 우편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678명(32%)의 응답자중 분석이 가능한 전문의 578명(28%)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전문과목별, 의원의 소재지별, 그리고 개원당시 병상소유 여부별로 병상보유 변동추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표본은 총 587명으로 남자 90.1%, 여자가 9.9% 로서, 총 개원전문의의 성별분포(남자 85.7%, 여자 14.3%)에 비해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개원 전문의의 과별분포는 산부인과 13.5%, 내과 13.1%, 소아과 12.1%, 일반외과 11.6%,가정의학과 8.9 %의 순서이고, 두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복수 전문의가 37명이었다. 그리고 6대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문의 수는 모집단과 비슷하나, 군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는 적게 포함되었다. 시·도별 분포 양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수도권에 40.3%가 분포되어 있었다.

시·군별 분포는 6대도시에 60.2%, 기타 시지역에 39.1%, 군지역에 0.7%가 분포되어 전문의의 도시지역 편재가 격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원기간을 보면 9년 이상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가 43.2%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개원기간은 9.7년이였다.

- 병상보유현황

개원당시 병상을 보유한 전문의가 54.1%(320명)이었으나, 이들 중 71.6%(229명)만이 현재까지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28.4%(91명)는 보유하지 않았다. 개원당시는 병상을 보유하지 않다가 현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의는 3.7%에 불과하여, 개원당시의 병상 미보유자가 개원하는 과정에 병상을 보유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원 당시는 54.1%가 병상보유 했으나, 현재는 40.4%만이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의 병상보유율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의가 보유한 병상의 기간 변화율을 1970년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으로 나누어보면 증가율이 0.69%(1970-1974) - 6.73% (1990-1993), 감소율은 0.99%(1970-1974) - 12.49%(1990-1993)로 감소율의 급증을 볼 수 있다.

- 병상 증감사유

병상수의 증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증가한 경우는 '병원급으로의 확장을 위해서'가 47.8%, '환자수에 증가확대 문제' 30.4%, '경쟁을 위해서' 10.9%의 순이었다. ② 감소한 경우는 '나이가 많아져서'가 31.2%로 가장 많으나, '수입의 감소'가 30.0%, '직원확보의 곤란'이 25.0%이었다.

병상수의 증감을 1980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격으로 원인별 분석하면 다음과 같았다. ① 증가원인은 '병원급 확장을 위해서'가 80-86년에 38.5%, 86-90년 64%, 90-92년에 55.6%로 계속 높고, '환자증가에 의해서'가 각각 30.8%, 20.0%, 38.9%였다. 증가원인을 분석하면 최근에 올수록 '병원급 확장을 위해서'가 주된 이유로 등장하는데 이는 의료보험의 도입에 영향을 받았다. ② 감소원인으로는 '나이가 많아져서'가 원인인 경우도 35.3%, 31.8%, 39.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입감소는 35.3%, 13.8%, 27.3%로 약간씩 낮아지고 있고, '직원확보의 곤란'이 각각 17.6%, 18.2%, 39.4%로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병상을 축소할 계획인 전문의 중에서 '필요하다'고 한 경우가 69.9%로 '필요없다'의 26.8%에 비해 약 2.5배나 많았다.

- 의원의 병상 필요도에 관한 인식

의원의 병상 필요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3.2%로 필요없다의 31.8%에 비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2배나 더 높았다. 병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병상을 축소하거나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44.8%나 되었다.

병상활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의료수가 조정과 관련해서 수술수가의 인상과 처치비의 인상을 원하는 비율이 총응답자의 17.7% 및 12.5%였다. 둘째, 행정규제의 소묘화와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준병상 50%확보의 철폐와 상급병실의 시설 기준에 대한 완화가 각각 27.0%와 26.4%로 거의 비슷하였고, 셋째, 인력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의 확보지원이 67.6%로 다른 인력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